



미닫이 문에 부착하면 10분 만에 자동문 변신

“아파트 발코니 문을 자동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진경 센서리움 대표의 질문이었다. 순간 음식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유리문이 머리를 스쳤다. 동시에 창틀을 때어내고 자동문을 설치하는 등 공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젠 공사 없이 10분 만에 된다”고 말했다.

센서리움이 개발한 ‘매직슬라이더’는 수동 미닫이문을 자동문으로 전환해주는 제품이다. 이미 설치된 문의 상단에 레일을 부착하고, 문틀에는 소형 모터가 달린 본체를 설치하면 된다. 모터가 작동하면서 레일을 따라 문이 움직이게 하는 원리다. 센서가 대상을 자동으로 인식해 동작하거나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다. 공 대표는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없이 간편하게 설치
센서리움은 2011년 설립된 산업용 센서 수입회사다. 보안장비 등에 들어가는 감지기를 취급한다. 공 대표는 2012년 출장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가 신기한 광경을 접했다. 애완견이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드나드는 데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이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자동문의 모습이 아니었



공진경 센서리움 대표가 부착형 자동 슬라이딩 전환 시스템 '매직슬라이더'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지수 기자

리모컨으로 조작 가능 수입가격 3분의 1로 줄여 “중국 등 아시아시장 공략”

다. 매직슬라이더와 비슷한 제품이 부착돼 있었다. 한국에서는 생소했지만 당시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원주택 등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이였다. 공 대표는 국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찬찬히 살펴봤다. 예상보다 원리가 간단했다. 조

금만 손보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들었다. 꼼꼼히 개선 사항을 찾아냈다. 디자인 면에서는 너무 크고 투박했다. 국내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가격대가 비싼 것도 흠이었다. 제품별로 다르지만 9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를 오갔다. 모터가 동작할 때마다 일으키는 소음도 문제였다.

그때부터 혼자 제품 개발과 연구에 몰두했다. 1년 만인 2013년 ‘조립식 도어 슬라이딩 장치’로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회사 내 연구

전담 부서를 설치해 ISO 9001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 디자인과 상표 등록을 마쳤다. 올해 초에는 매직슬라이더 시제품을 내놨다. 경기 하남시 인근 노인보호센터에 제품을 시범 설치했다.

◆“고품질로 아시아 시장 선점”
매직슬라이더는 기존 제품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동이 가능한 문의 최대 무게를 60kg으로 늘렸다. 기존 제품들은 40~50kg 수준이었다. 웬만한 성인 남자가 열 수 있는 문이라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터는 부피가 커 자체 개발을 통해 소형화했다. 동시에 소음을 대폭 줄이는 데도 성공했다. 가격은 30만~40만원대로 외국 제품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실내엔테리어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도 개선했다.

센서리움은 2019년까지 매출 60억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공 대표는 “아직 블루오션인 만큼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이지수기자 onething@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세종바이탈-매듭이 필요 없는 실리콘 신발 끈 (070)7166-3800 △메디칼드림-요화학분석기 (02)6000-7700 △후스타일-요거베리 요구르트메이커&치즈메이커 (02)6217-0112 △센서리움-부착형 자동문 전환 시스템 (031)795-5077

해피랜드 가을 유아복 출시



해피랜드 F&C가 추석을 앞두고 주요 유아복 브랜드의 가을 신상품을 선보였다. 압소바의 ‘브르노 절개 배색세트’(사진)는 낫수염 모양의 보타이를 탈부착할 수 있으며 셔츠를 겹쳐 입은 듯한 카라가 특징이다. 파코라 반베이비는 여아용 조끼세트, 프리미에슈르는 체크 스카프가 특징인 상하의를, 크리에이션sb는 셔츠가 포함된 세트 등을 출시했다. 해피랜드는 구매금액별로 몇병간 초대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인도서 직접 재배... 헤나가격 3분의 1로 낮춰”

(천연 염료)

유빈 더수자타 대표

인도인 아내와 창업 헤나전용 미용실 사업도

“인도 라자스탄 사막 지역의 헤나(천연 헤어 매니큐어)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들여와 유통과정의 거품을 뺐습니다. 기존 제품의 3분의 1 가격으로 헤나 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유빈 더수자타 사장(사진)은 16일 “미용업계 후발주자지만 좋은 품질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자타는 유사장의 인도인 부인 이름이다. 인도에서 자란 헤나를 말려 가루로 만든 뒤 물에 갠 다음 영양 공급이나 머리 염색 등에 쓴다. 인도 뭍바이대 경영학과에서 공부한 뒤 무역업을 하던 유사장은 인도에선 대중화된 헤나에 관심을 가졌다.

헤나 재배 농장을 운영 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일본 와세다대와 미국 보스턴대 대학원 졸업하고 LS 니꼬동제련에

서 회장 비서로 일하던 유사장의 형(유신 상무)도 합류했다. 셋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회사를 설립했고 인도에 지사도 세웠다. 형은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아내와 유사장은 원료 공급 및 제품 개발을 맡았다.

헤나 전문 미용실 가맹사업도 시작했다.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직영 1호점을 낸 뒤 현재까지 전국에 가맹점 10곳을 열었다. 유사장은 “헤나 시술, 커트, 염색 등 세 가지 서비스를 고 가격에

보다 20~50% 저렴하다”며 “헤나 제품이 100g에 2만5000원 하지만 더수자타는 8800원에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올해 말까지 가맹점이 50여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헤나로 제조한 샴푸, 오일 등 관련 제품도 인터넷몰에서 판매한다. 유사장은 “헤나는 염색 효과가 있으면서도 두피에 자극이 없는 천연 영양제”라며 “헤나 사업을 바탕으로 인도의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들여와 양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실패도 훌륭한 자산” 中企人 일으킨 技保

(기술보증기금)

김상진 가온인스피 대표 再起 가능성으로 지원받아 디자인 사업으로 매출 7배 증

김상진 가온인스피 대표(48)는 2005년 8월 ‘미래창’이란 회사를 차렸다. LCD(액정표시장치) 필름을 잘라 납품하는 임가공업체였다. ‘직접 만들어 팔 만한 제품은 없을까’ 고민 끝에 ‘광학평판필름’에 주목했다.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제품이었다. 이를 국산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다. 공동 투자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빈손’이 됐다. 이후 7년 동안 낮에는 공사 현장 인부, 밤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일했다.

어느덧 나이는 40대에 접어들었다. 알고 지내던 디자인 회사 대표를 찾아가다. 흥익대 미대를 졸업해 디자인만큼은 자신 있었다. 입사 후 3년 정진없이 일했다.

재도전을 꿈꿨다. 채무 변제가 급선무였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문을 두드렸다. 재기지원보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심사를 말

은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은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은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은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은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은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김상진 가온인스피 대표(왼쪽)가 직원들과 제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제공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시스템 잇단 공급

보안기술업체인 파이브지티는 얼굴인식 시스템 ‘유페이스키’를 서울 구기동 재건축 빌라 16가구에 설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얼굴인식 시스템이 아파트나 빌라 단지에 통째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페이스키’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주택 현관문을 열어주는 장치다. 열쇠로 문을 열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면 것을 얼굴 인식

으로 대체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외부에서도 방문자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주택단지에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건설사들과 협상 중이다. 정규택 파이브지티 대표는 “얼굴인식 시스템은 주택이나 사무실의 보안을 강화한다”며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 기존 방식을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이구열정

MONDAY NIGHT BASEBALL

최희의 맨데이나잇 베이스볼

sky SPORTS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

SkyLife 50 | olleh tv 54 | Btv 38 | U+tv 35 | 디엠비 76 | CM 다시연명 117 | 타-브로드 123 | CMB 86 | 117